자동차업계 신기술로 미세먼지 잡는다

현대·기아차 '지능형 공기청정 시스템' 개발

르노삼성, 미세먼지 잡는 '이오나이저' 선봬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자동차업계가 공기정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미세먼지 방지 대책을 자동차에 적용한 것으로, 대기오염이 심한 운행 조건에서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차량 내부 미세먼지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스스로 공기를 정화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과거 차량 공기청정 시스템은 운전자나 탑승자가 수동으로 작동시켜야 했지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공기청정 시스템은 스스로 공기 질을 측정하고 가동하는 기능이 추가됐다.

현대기아차가 개발한 공기정화 시스템은 차량용 레이저 기반의 미세먼지 센서가 차량 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다.

현대기아차는 보통 실외와 공간의 구분이 없는 차량의 특성상 가정용 공기청정기에 적용되는 미세먼지 센서를 적용하면 작동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새롭게 개발한 고성능 콤비 필터는 외기모드 기준 8㎍/㎥, 내기모드 기준 2㎍/㎥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감소시켜 준다. 차량 내부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기존 대비 88%에서 90% 정도까지 감소시키는 수치다. 현대기아차는 새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한 공기정화 시스템을 앞으로 출시될 신차에 순차적으로 탑재할 계획이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이온을 발생시켜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이오나이저'를 활용한 공기정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활성화 수소와 음이온을 발생시켜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유해물질을 제거해준다.

이오나이저는 차량 실내 공기정화뿐만 아니라 시트에 생길 수 있는 곰팡이 등 살균과 탈취 기능도 유용하다. 르노삼성의 중형세단 SM6는 릴랙스 모드와 클린 모드 두 가지 버전의 이오나이저를 제공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스스로 자동차 내부의 공기를 정화하는 레이저 센싱 기반 지능형 공기청정 시스템을 개발했다. /현대차그룹 제공

릴랙스 모드는 공기중 세균이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줄여주고 클린 모드는 이온 방출을 통해 자동 탈취 기능이 작용한다.

또한 차량 실내 공기 개선을 위해서는 공기정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차량 관리나 실내 청소가 우선이다. 이를 위해 르노삼성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QM3는 탈착식 시트를 제공한다.

기존의 자동차 시트는 고정돼 따로 세척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게다가 상당한 먼지를 발생시키는 직물 시트의 경우 청소가 더욱 큰 문제였다. QM3는 고정관념을 깨고 시트에 지퍼가 달린 커버를 씌웠다. 시트를 간편하게 벗겨내 세척을 하면 차량 내부를 보다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고객에게 더욱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업계에서 다각도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출시되는 신차들에는 첨단 미세먼지 시스템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영 기자

강점 디자인 살리고 세부사항 업그레이드

르노삼성 '더 뉴 QM6' 출시

르노삼성자동차는 간판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QM6를 출시한 지 3년 만에 부분변경 모델인 '더 뉴 QM6'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더 뉴 QM6'는 품질과 사양을 업그레이드한 가솔린 모델(GDe) 외에도 플래그십 브랜드인 '프리미에르' 도입, 국내 유일 액화석유가스(LPG) SUV인 LPe 등으로 재도약에 나선다.

르노삼성은 기존 QM6 구매의 핵심요소가 외관이라는 점에 따라 '더 뉴 QM6'는 시장에서 인정받은 QM6의 디자인을 살리고, 세부 사항만 업그레이드했다.

전면부의 변화를 보면 범퍼에 크롬 버티컬 라인을 적용했고, 스키드 디자인을 날렵하게 바꿨다. LED 안개등을 모든

더 뉴 QM6.

트림에 기본으로 탑재했으며 18인치 투톤 알로이 휠을 LE 트림에도 기본으로 넣었다.

'패밀리 SUV'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편의사양이 강화됐다. 2열 좌석은 뒤로 젖혀지는 리클라이닝 기능을 갖췄고, 운전석 시트는 마사지 기능을 추가했다. /송수영 기자

정의선 부회장 '수소경제 전도사' 톡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최근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G20 에너지환경장관회의 오찬에서 수소위원회 공동 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수소경제 사회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현대차 그룹 제공

현대차 '베뉴' 24일부터 사전계약

하반기 첫 신차…2030세대 겨냥한 엔트리 SUV

1인 라이프스타일 최적화된 상품성·기본기 갖춰

다음달 출시되는 현대차의 하반기 첫 신차, 베뉴의 사전계약이 시작된다.

현대자동차는 19일 엔트리 SUV '베뉴(VENUE)'의 주요 사양 및 가격대를 공개하고 24일부터 전국 영업점을 통해 사전계약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베뉴는 스마트스트림 1.6 가솔린 모델 ▲스마트 ▲모던 ▲FLUX등 총 3가지 트림으로 각각 운영된다.

판매 가격은 ▲스마트 1,473만원~1,503만원(수동변속기 기준), 1,620만원~1,650만원(무단변속기 기준) ▲모던 1,799만원~1,829만원 ▲FLUX 2,111만원~2,141만원 범위 내에서 각각 책정될 예정이다.

베뉴는 세련되면서도 실용적인 삶을 추구하는 '2030 세대'를 겨냥한 엔트리 SUV로, 혼밥· 혼술·혼영 등 밀레니얼 세대의 메가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1인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상품성을 갖췄다.

또한 베뉴만의 독창적인 캐스케이딩 그릴과 과감한 사이드 캐릭터 라인, 와이드해 보이는 범퍼 디자인으로 스포티한 정통 SUV스타일을 완성했다.

특히 후미등은 각도에 따라 다양한 패턴으로 반짝거리는 렌티큘러 렌즈(lenticular lens)[2]를 세계 최초로 적용해

현대차 베뉴(VENUE).

베뉴만의 감각적인 개성을 완성했다.

베뉴는 스마트스트림 1.6 가솔린 엔진에 변속 시 충격 없이 매끄러운 주행이 가능한 스마트스트림 IVT(무단변속기)를 결합한 차세대 파워트레인으로 동급 최고 수준의 연비와 안정적인 동력성능을 확보했다.

또한 ▲전방 충돌 방지 보조(FCA), ▲차로 이탈 방지 보조(LKA), ▲운전자 주의 경고(DAW), ▲하이빔 보조(HBA) 등 첨단 지능형 주행 안전 사양을 기본 적용해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다양한 맞춤 사양도 베뉴의 강점이다.

▲디자인에 차별화를 둔 FLUX 트림 ▲차량 IoT, PET(반려동물), 오토캠핑 등 다양한 TUIX 패키지 ▲적외선 무릎 워머(세계 최초), 프리미엄 스피커 등의 TUIX 아이템 등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아이템들로 1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고객들이 자신만의 개성을 완성할 수 있도록 했다. /송수영 기자

경제 프리즘

전남농협, 양파 소비촉진 행사

전남농협이 양파 가격 하락으로 시름을 겪고 있는 재배 농가를 위한 소비촉진 행사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지역본부 주차장에서 임직권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양파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양파는 전국적으로 전년대비 재배면적이 25% 감소했으나 기상여건 호조로 생산량은 12% 감소하는데 그쳐 평년 대비 15만 1000톤이 과잉생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지가격은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이다.

이에 전남농협 임직원은 소비확대를 통한 양파가격지지를 위해 양파 판매에 발 벗고 나섰으며, 지난 4일 출정식을 시작으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한 소비자는 물론 도내 식당 등 소비처를 발굴해 총 20억원(3,500톤)을 목표로 판매에 온힘을 모으고 있다.

커넥티드카 가입자 100만명 돌파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제네시스 브랜드의 '커넥티드카' 서비스에 가입한 국내 고객이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현대자동차그룹이 19일 밝혔다.

'커넥티드카'는 통신이 적용돼 차량의 내외부가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운전자에게 다양하고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는 자동차다.

현대·기아차는 2003년 말 텔레매틱스 서비스 '모젠'을 시작으로 커넥티드카 시장에 진출했다.

2012년부터 기아차는 '유보(UVO)', 현대차는 '블루링크(BlueLink)'라는 브랜드로 분리해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제네시는 2017년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GCS)'를 선보였다.

토스, 자동차 특화서비스 3종 출시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19일 자동차 특화서비스 본인 자동차 시세조회와 보험료 조회, 판매 등 3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차량을 소유한 이용자는 누구나 토스 앱의 '내차 시세조회'에서 본인 소유 차량 번호를 등록해 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고차 시세 데이터베이스 기업 카마트와의 제휴로 내차 시세 정보 조회가 가능해졌다. 차량 기종과 주행거리에 따라 시세를 알아볼 수 있다. 현재부터 최대 3년 후 시세까지 확인할 수 있다.

차량 정보·운전자 보상 범위·할인 특약·담보와 보장 금액을 입력하면 간단한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삼성화재·KB손해보험·DB손해보험·현대해상·한화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비용을 조회할 수 있다. 업계 최초로 조회 금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보험가입도 할 수 있다.

다스코㈜ Development Advance Solution Co.,Ltd.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로운 이름,
다스코[DASCO]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로운 이름,
세라코[CERACO]

새롭게 출발하는 다스코㈜와 세라코㈜는
축적된 기술력과 고객신뢰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R&D를 통해
창조와 혁신을 선도하는 Total Solution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스코㈜ 전남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26-2
Tel : 061)370-2114, Fax : 061)370-8195
도로안전, 데크플레이트, 단열재, 외장재, 태양광

세라코㈜ 전남 나주시 봉황면 농공단지길 134-7
Tel : 061)331-9000, Fax : 061)331-9003
세라믹벽돌, 친환경, 수처리, 도로안전, 테라코타

세라코㈜ Ceramic Eco-Business Road Safety Architecture Co.,Ltd.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1.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임대하였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2.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섭외가 가능하신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시공을 위탁 받으신 분
- 대표 EPC社가 필요하신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ONE-STOP TOTAL SOLUTION
태양광사업의 A to Z, 프로젝트 개발부터 EPC, O&M까지
접수문의 : 담당자 02)3440-7842, jykang@dasco.kr